

# GRACE 선교소식

2026년 5월 GMI-GKC 선교사 현황: 58개국 301명 (자체파송 79%)

##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저는 매일 그레이스 타임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일천번제 새벽예배를 드리며 큰 은혜 가운데 사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시편 기자들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묵상할 때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흔들리고 불안한 시대에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은 상황이 좋아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

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참된 안전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환난 속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는 고백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편 묵상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더욱 깊어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화요일 저녁에는 그룹장·교역자 모임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회개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요일에는 새벽예배 후 성도님들의 사업체와 환우들을 심방하며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였습니다. 저녁에는 지도자 자질론 강의를 통해 은혜 충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요일에는 창립 44주년 기념 음악예배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수원순복음교회 집회: 5/20-5/22
- 순복음원당교회 집회: 5/29-5/31
- 창립 44주년 부흥성회: 5/14-5/16
- 창립 44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5/17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부흥성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참여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믿음의 선포가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 M국

유00 / 킨00 선교사

### 복음을 나누는 사역

매주 피난민 가정의 어른들과 성경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도해 힘쓰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M언어 설명이 있는 쉬운 내용의 성경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달에 한번 그 달의 생일자들을 모아 생일파티를 합니다. 케이크 한번 먹어보지 못한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기를 기도드립니다.

### 새로운 해, 물놀이와 학용품 선물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4월의 물축제 ‘띤잔’, 이



기간만큼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 아이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물총에 물을 채우고 지나가는 모두를 향해 물총을 쏘며 신나는 며칠을 보냅니다.

예수마을은 도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시골이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자체적으로 물놀이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새학기를 맞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새 학용품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무력무력 자라는 돼지들

농한기에 일거리가 부족한 예수마을 주민들을 위해 작은 돼지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끼 돼지(약 15~20만원)를 구입해서 사료와 잔반, 기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4, 5개월을 키우면 50~60만원 정도에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마음이 가시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현재는 예수마을에 거주하는 3가정에 새끼 돼지 2마리씩을 구입해 드렸고, 각 가정의 책임 아래 잘 자라고 있습니다.

### 한국어 학원 상담과 개강 준비

4월은 M국의 연말 연초의 달이라 대체로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5월에 수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며, 광고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 중인 스태프들과 일부외부 사람들을 모아 한 클래스가 5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준비되어진 청년들이 연결되기를 기도드립니다.

# 국

한OO / 손OO 선교사

## 예배를 통해 믿음의 자라는 아이들

S지역 한 임신부 자살 사건으로 C마을 방과후 학교를 잠시 닫았었는데, 장소를 제공했던 주인이 다시 허락하여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오지 말라고 위협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방과후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감싸주시고 아이들의 마음 속에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하고 기쁜 일입니다.

이 다음에 이 아이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 그리고 열방의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에 방문하여 **알콜중독에 걸려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나이 어린 남편, 귀신의 역사로 자주 쓰러지는 여인**, 어려운 마을에서도 더 소외되고 유기된 여인을 위해 기도해 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비로소 말씀을 듣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눈물 흘리는 노인...** 주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 아내의 교육사역

말씀을 통해 작은 그릇을 보여 주시고 큰 비를 준비하라는 응답 이후 이 기다림 끝에 개설된 B대학과의 한글어 수업이 막바지에 이르러 마지막 시험과 종강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보드시험 및 기말고사와 겹쳐 수업시간표를 짜고 진행하는 일이 수월치 않아 가끔 온라인 수업도 병행하며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개강에 한 번도 결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개근상도 주고, 성적이 높은 학생에게는 우수상도 주어 격려하고, 한국문화를 접하며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때로 그 아이들의 부모님에게도 하이파이브로 인사하며 교회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며 만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이야기’, ‘천국의 비유’, ‘기름등불 들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부**

**의 자세’** 등의 말씀을 나누고, 종이컵촛불을 만들어 손에 들고 함께 **“마라나타”**를 외치기도 하며 즐겁게 주일학교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가냥쿨 학교에 다시 대체교사로 가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못 본 새 살짝 더 성숙해진 아이들, 한국어 공부에 대해 나름 더 자신감과 열의를 가진 모습을 보니 기뻐했습니다.

한나 선생님이 알려준 게임들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국어 버전을 지금도 가끔 부르며 기억한다고 하네요. 칠노트에 뽀뽀뽀 뽀 쓰여진 한글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칸노트로 바꾸고 한 글자씩 쓰라고 했더니, 선생님의 이야기를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서는 오늘 배운 내용 10번 쓰기 숙제를 문장별로 다 분류해서 새 공책에 글자도 더 정성껏 쓰고, 페이지마다 리본도 달고 노트 이름도 정하고 새로 이쁘게 꾸며 온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만 8년간 섬기던 **토요한글학교**는 3월 종강식을 기점으로 퇴직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바빠질 주사역을 기대하기에, 더 잘 준비하고 더 잘 대처하기 위해서 퇴직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동안 그렇게도 좋아하던 일인데 주님께서 쉽고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신기하면서도 감사하고, 더더욱 주님과 써 내려갈 앞으로의 사역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매순간 입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명하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 D지역 GIGL 10기에게 은혜를

이번에 **LA 은혜교회 EM 영어 사역팀**이 D지역에서 **GIGL 10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저의 사역자 수직과 써니, 그리고 훈련생 2명이 참석하였는데 수직과 써니는 총무팀에서, 부역팀에서, 또 통역으로 훈련생들을 섬겼습니다.

훈련생들을 환영하고 모든 순서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매일 저녁마다 모여 프로그래밍 진행을 체크하고 훈련생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이번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깊게 깨닫고 큰 감동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축복된 시간이었고 이러한 축복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갈 때는 훈련으로 생각하고 갔지만 올 때는 사랑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GIGL을 통해 1국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길 기도합니다.

## 써니 사역자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

함께 사역하는 써니 사역자가 이번에 그레이스미션 대학교의 목회학석사 과정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써니는 다니던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레이스미션 대학교의 장학금과 한 장로님의 후원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써니 사역자를 통해 많은 전도자를 양육시키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지금 섬기고 있는 My school 어린이집을 통해 학생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모이는 기도 모임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되고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마다 마을에 방문해서 말씀을 가르치며 성도들을 제자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써니 사역자를 통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 하나님의 따뜻한 성탄절

이번에 7개 마을을 방문하여 성탄절 행사를 가졌습니다. 아이들과 성탄 트리도 만들고 함께 예배하고, 특송과 성경 암송, 워십 댄스를 통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이 모여 성탄절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또 성탄절 선물 200박스와 스웨터 50개를 나누었는데 제 친구 방글라데시 선교사의 성탄절 선물 사진을 보고 저도 박스에 담아 성탄절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담아 주었는데 아이들이 이러한 성탄절 선물은 처음 받아봤다며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과부들을 위해서 스웨터를 선물했습니다.

12월의 새벽이 꽤 쌀쌀한데 이 스웨터를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방과후학교 학생이 아니거나 밖에서 기웃거리는 몇몇 아이들에게도 작은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아이들과 마을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1국

## 기OO 선교사

금식기간이 끝나고 1국에서 가장 큰 명절인 르바란을 보냈습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에만 금식을 하기에 역설적으로 금식 기간에 식재료 매출이 15-30% 이상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전보다는 사람들이 금식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를 느끼는 한 해였습니다. 교제하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생필품을 나누고 나눔을 하는데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금식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몇몇 분들에게 기독교인들의 금식과 1의 금식에 대한 다른 부분을 나누었는데 매년 돌아오는 **금식 기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르바란 연휴 시작에 중부 지역 정탐을 다녀왔습니다(3월 16-19일). 지역별로 사람들의 특성이 다름을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단위 여행객도 많았지만 연휴에 고향에 돌아가기전 혼자 여행하는 청년들이 꽤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와의 만남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던 청년들에게 **문화의 익숙함을 깨는 “생각의 틈”이 생기는 시간**이었기를 기도합니다.

**4월 2일, 4일, 18일 공부방과 M 학교에서 부활절 나눔**을 하였습니다. 1국은 1종교가 숫자적으로 가장 많지만 각 종교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여섯 종교의 기념일도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다름을 설명하며 1종교의 금식과 기독교인의 금식의 차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의미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M 학교에서는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없었지만 게임을 통하여, 달걀의 이미지를 통



하여 새생명에 대한 나눔을 하였습니다. 다름을 기억하며 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심겨지는 시간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주님의 때에 자라고 열매맺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기숙사 학생들**과는 매주 성경 개관 공부를 통하여 통독의 은혜를 더하고 있습니다. 생활적인 부분의 성장도 기대하며 영어 공부와 운동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1국 현지단체를 통하여 식비와 컴퓨터를 지원받아 기숙사 학생들 만이 아니라 SOG 공동체 학생들도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기숙사가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가족을 떠나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가족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성원의 변화도 있습니다. 한 명의 학생이 5월에 입학할 예정이며 신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는 7월이면 기숙사를 떠나게 됩니다. 새로운 친구, 떠날 친구 모두 어디서든 잘 적응하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후원 학생들 부모 기도 모임**은 월 1회, 학생들 양육은 가정별로 월 2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변화에 앞서 부모들의 신앙 모범이 중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양육 모임에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사모함을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몇몇 가정에 변화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한 가정은 다른 섬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한 가정은 이혼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정은 가정 내 문제로 인해 예배의 자리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 얼굴 마비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 다리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다. 도전의 시간 가운데 나눔과 기도, 양육의 시간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SOG 공동체의 모임과 예배**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된 부흥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매일 만나 성경을 읽고 나누는 시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1국 타단체와 협력하여 사회봉사 활동과 구제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현지사역자와 섬기는 학생들이 익숙함과 많은 사역 가운데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청년들을 바른 믿음 안에 세



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026년 시작된 바뚜 교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주 예배를 지속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회자로 처음 섬기는 인텐 목사가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지혜롭게 교회를 세워 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신앙이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월 23일-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GMI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였고 타지역에 계신 선생님들과의 만남과 교제는 즐거웠습니다. 말씀과 섬김으로 위로 받게 하신 하나님과 섬겨 주신 GMI 성도님과 목사님들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4월 25일-5월2일 발리/숨바 지역**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협력하여 은혜교회 연합팀 통역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팀 사역을 하게 되는데 하나된 마음으로 사역하며 모든 일정 주님 손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인카운터에 참여하는 참석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영적 기반을 견고하게 하며 앞으로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영적 자양분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5월 10일 부모기도모임, 5월 31일 SOG 예배, 주1회 후원 아동 양육 모임에서 설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목요 기도회 설교도 예정되어 있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저의 한계를 바라보며 긴장과 떨림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쁨 부으심으로 꼭 필요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언어와 개인적인 한계를 뛰어 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I국

장OO / 최OO 선교사

## 목요 메시아닉 청년 홈그룹 & 주말 수련회

주님의 은혜로 매주 목요일 저녁 메시아닉 청년 홈그룹은 전쟁 속에서도 한 주도 빠짐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강권하심으로 매주 목요일 메시아닉 청년들이 사모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3월 16-18일에는 G고원에서 20여명의 청년들과 주말 수련회를 가지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쟁으로 지친 청년들의 마음이 위로받



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노암 노아가 주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 수련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 사탄의 전략 vs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백성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거짓과 미움을 통해 모두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전략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 것입니다.

## 마지막 때

이번 I국 이란 전쟁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I국은 단순한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지표입니다. I국의 구원을 저지하기 위해 사단은 I국 백성의 멸절에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아니라, 1979년에 시작된 이란의 신정 정치 세력을 통해 I국을 지도 상에서 지워버리고자 부단히도 노력한 처참한 결과를 현재 맞이하고 있습니다.

롬 11장에서 I국의 넘어짐과 실패가 온 열방의 풍성함이 되었는데 I국의 충만한 온 열방에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된다고 사도바울은 고백합니다.

## 반유대주의

이번 전쟁으로 무엇보다 가장 큰 결과는 전 세계적인 반유대주의가 더 확대되고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I국은 거의 모든 국가와 민족들로부터 더 깊은 미움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저지와 이란 신정 독재 정치 세력 제거를 위한 어느 정도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사단은 미디어를 통한 교묘한 전략으로 강력한 반유대주의에 기름을 붓고 있으며, I국/유대인 증오를 조장하여 I국에서 일어날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쟁의 승패를 위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혼돈 가운데 열방의 구원과 I국/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심해질 세계적인 I국/유대인 증오(반유대주의) 속에서 I국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전략을 취할 수 있도록 증보해 주십시오.

# 캄보디아

김광석 / 이영미 선교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캄보디아 땅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보통 우기를 지나며 1월 중순부터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2월부터 급격히 더워지는데 이번에는 이상기온으로 3월 중순까지 30도 안팎 이어도 바람도 좀 불고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9도로 오르면서 체감온도는 더 힘들게 느껴지네요. 한국은 날씨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이 때 열감기 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쓰나미 은혜 교회는 전과 동일하게 어린이청소녀예배와 어른예배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몇 가지 특별히 기도 부탁드릴 것은 두 명의 젊은 청년이 영적인 기쁨이 심해서 요즘 두 달간 예배에 성실히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방 때마다 핑계가 많고 약속도 철썩 같이 하

지만 입 바랜 소리일 뿐입니다. 캄보디아의 20대 청년들도 한국의 20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이상은 높고 돈벌이는 되지 않고 놀고 싶은 마음들이 공존하며 혼돈과 불 안정의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며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역자 사라 볼 가정의 영적 성장과 물질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1년 반 전 처음 사역자 면접을 보면서 사명감과 목사로서 말씀의 풍성함은 없어 보여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함께 사역하며 성장하는 것을 보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역자가 어려운 처지여서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사역을 함께 하는데 성실히 주님을 사랑하며 교제함으로 영적인 진보가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있는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하여서 캄보디아에서 제일 좋은 국립대에 반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필요가



많음으로 주께서 그의 필요들을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부활 주일에 성극을 하였습니다. 처음하는 데다가 아이들이 부끄러움이 많아 웃음을 참지 못해 예배가 좀 어수선 해지긴 했습니다. 이 아이들 각자가 참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속되는 전쟁과 분파와 사랑이 식어 짐을 보며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느낍니다. 고 환율에 유가는 치솟는 속에서 너도 나도 힘들다 고향을 치는 이때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주께서 하시는 일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묵묵히 기도하는 선교사이길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베네수엘라 & 콜롬비아

김도현 / 강미애 선교사

## 아도나이 교회 청년부 수련회

지난 2월에는 주님의 은혜로 교회 청년들이 날로 부흥하여 처음으로 대학, 청년부들만 모여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지체들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었고, 교회가 성장함으로 서로 잘 알지 못했던 지체들이 서로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비전이 대학생 사역을 통한 세계선교이기에 계속해서 대학, 청년부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대학사역 Modu Campus 수련회와

### 중남미 선교

매년, 대학생 사역하는 현지 교회들의 리더십들을 불러모아 수련회를 합니다. 올해 2월에 120명이 넘는 리더십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멀리 콜롬비아에서도 와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한 해 주님이 각 교회에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다음 1년을 준비합니다.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됩니다. 그리고 부워주시는 비전과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번 달 4월에 콜롬비아(이바게)와 엘살바도르(산살바도르)에 대학생 사역 개척을 위해 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하였습니다.

콜롬비아 캠퍼스 사역의 세번째 도시가 될 이바게에 두명의 단기선교사를 4월 20일 파송하였고, 엘살바도르에는 수도에 캠퍼스 사역의 개척을 위해 2명의 단기선교사가 파송받아 4월 17일 엘살바도르에 도착하여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베네수엘라를 넘어 중, 남미에 대학생 사역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언젠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모든 나라에 대학생 사역 세울 날을 믿음을 바라봅니다.

## 베네수엘라 신학교 4월 모임과 콜롬비아 신학교

이번 신학교 모임에는 솔라 선교사가 창조론을 가르쳤습니다. 한 주간 수업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큰 기적이며, 은혜임에 감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을 듣고 목사님들이 구원자 하나님은 알았으나, 창조주 하나님은 몰랐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옴의 고백처럼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다가 눈으로 주를 뵈옵나니 라는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알게 되고, 말씀만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2월에는 콜롬비아 신학교에 이창기 목사님이 오셔서 창세기 강해를 해주셨습니다. 참 귀한 시간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기초를 다지고 말씀으로 은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5월에 다시한번 모임을 앞두고 있는데, 솔라 선교사가 창조론을 콜롬비아 신학교에 가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편견과 세상의 지식들이 깨어지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가는 콜롬비아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가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선교사 훈련원 (CEFOM)

6명의 훈련원생들이 훈련원에서 매일 3시간 기도, 대학생 사역 훈련 및 전도, 그리고 영어, 터키어, 아랍어를 배우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시작할 선교훈련 실습에 보내

질 나라들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6월에 터키 대학생사역 개척을 위해 3명과, 요르단에는 전쟁상황이 나아지고 항공편이 좋아지면 2명이 보내질 예정입니다. 터키에 갈 팀들은 이스탄불 국립 대학에 들어가 학생 비자를 받고 터키어를 배우며 대학생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숙소와 현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순전히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국경에 있는 쿠쿠타라는 도시에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곧 2명이 단기 선교사를 보내어 훈련을 할 예정인데, 주님께서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 가족 이야기

저는 어제 토요일 은혜의 만남 주말 수양회를 인도하고 주일예배를 드린후 지금은 베네수엘라 라라주에 있는 바르끼시멘토라는 도시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복음 컨퍼런스를 인도하려고 지방에 와있습니다. 끝나고 바로 토요일 침례식인도와 5월에는 콜롬비아 신학교, 콜롬비아 이바게 도시 집회, 돌아와서 베네수엘라 시우닷 볼리발 집회와 뿌에르토 오르닷에서 5일간 복음 컨퍼런스로 일정이 많은데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베네수엘라 여러 도시에 복음학교를 강의하고 나면, 그 후에 선교 컨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을 뿐만 아니라, 각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월에 카라보보 주에서 선교컨퍼런스를 가지고, 5월에 시우닷볼리발과 카라카스에서 선교 컨퍼런스를 할 예정입니다. 컨퍼런스를 통해 베네수엘라 교회들이 일어나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 이기는 자이어야 한다

<1분단상 152-5월호>

- 김대규 장로

왜 계시록 2, 3장에서 일곱 교회에 주시는 약속마다, 그리고 21장 7절에서도 “이기는 자(승리자)”를 반복하여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속경륜이 종말론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예고하는 묵시문학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최종적으로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를 계시하는 종말론적 선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구원” 그 자체보다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 참여의 실현성”이 강조된 것이다.

로마서 8장을 비롯한 여러 서신에서는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τέκνον: 존재적 자녀)라고 하였고 그들이 장차 유업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강조한 점은 신분의 은혜, 공칭의와 양자 됨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에 근거한 구원의 객관적 토대이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υἱός: 상속적 관계)이 되리라.”고 했다. 여기서 사용된 ὁ νικῶν(이기는 자)은 현재 분사 단수형으로, 단회적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견디는 자를 가리킨다. 이는 어떤 엘리트 집단을 구원과 별도로 구분하려는 표현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본질은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언약적 표현이다(계 2-3장 반복 구조 참조).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만 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와의 개개인의 관계가 항상 올바로 서 있어야 함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기는 자”는 “구원받은 자와 다른 계층”을 말한다기보다는 “참된 구원(이김)”이 종말까지 인내 속에서 드러나는 상태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ἔγω νενίκηκα τὸν κόσμον, 에고 네 미케카 톤 코스몬)”라고 선언하셨다(요16:33).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하여 세상과 세상권세를 쥔 사탄과 그 무리 그리고 이를 추종하는 모든 것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 승리는 반복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승리는 쉽게 얻은 것이 아니다. 고난의 십자가는 사탄과 세상권세에 대한 결정적인 심판의 사건으로 세상과 사탄을 물리친 불변의 승리인 것이다. 주님은 끝내 선언하셨다. “다 이루었다”고(요19:30). 이것은 완전하게 성취되었고, 그 효력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됨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승리의 은혜자리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예수님의 승리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다. 그렇다고 안일하게 있으려는 것은 아니다. 사탄은 이미 심판이 선고되었으나 최종적 제거는 종말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고 하였다(벰전5:8).

이것이 우리가 매일 부딪쳐 나가야 하는 가장 큰 영적 전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성된 승리에 참여하는 삶을 살 때 승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의 “이김”은 인간의 공로에 대한 축적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을 붙드는 충성을 의미한다(계 12:11).

우리가 믿음의 삶이 되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데, 세속과 타협하는 삶, 사랑과 돌봄이 없는 삶,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삶, 악을 이기지 못하는 삶, 거짓된 삶을 산다면 믿음을 흔들려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로 우리에게 “이김”이 필요하다. “이김”은 믿음의 성숙과 완성을 말하기에 구원을 획득하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이

참됨을 드러내는 열매이기 때문이다. “이김”은 이미-아직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깨어 있어 근신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말씀과 기도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완주한 자로서 “이김”으로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종말론적인 확증과 공개적 선언에 함께하는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계21:1), 위로부터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오는데 이 새 성은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고 하였다(계21:2). 이 때 우리가 “이기는 자”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와 함께 상속은 신분적 수여로, 통치는 기능적으로 참여케 된다(계 22:5). 이것은 공로적 획득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로 누리는 종말론적인 영광이다.

그렇다면 이미 존재적 아들로 부름 받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상속이 드러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이기는 자”는 종말까지 인내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을 지금 털어내야만 한다. 번치않는 믿음과 충성에서 요동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이기는 자로의 첫 Step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는 길이다.



##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I국 한OO / 손OO 선교사

1. 방과후 학교 아이들이 전인적인 교육을 통해 온전한 주의 제자로 자랄 수 있도록
2. 차별과 억압 속에 있는 마을 교인들을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3. I국 대학교 한국어 사역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도록
4. 외부에 한국어 강의실이 세워지고, 학생들을 전도하고 제자로 양육할 수 있도록
5. 방과후 학교 교육 환경이 개선되고, 전도자/교사가 양성되고 필요한 후원이 채워지도록
6. 가족의 영육의 강건함과 신분 보안을 위해서



### I국 기OO 선교사

1. 장학 학생들과 부모님들, 기숙사 학생들, 공동체 학생들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2. 공부방 학생들, 만나고 교제하는 M 및 타종교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3.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지혜 충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4. 2026년 7월말 비자가 만료되는데 다음 비자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 I국 장OO / 최OO 선교사

1. I국에 대한 적대감이나 반유대주의적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I국을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게 하시며, I국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게 하소서
2. 섬기고 있는 메시아닉 청년들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친 몸과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소서
3. 저희 가정이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피난처가 되게하셔서 I국 친구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사랑과 평안의 강력한 통로가 되게하소서



### M국 유OO / 킨OO 선교사

1. 예수마을의 피난민 가정들이 주님의 믿음 안에서 잘 지내도록
2. 한국어교육이 사역으로 잘 자리잡도록
3. 유OO, 킨OO 선교사가 함께 동역하는 선배 선교사님들과 함께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4. 이란사태 등으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진 M국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 캄보디아 김영대 / 조정아 선교사

### 쓰나오 은혜교회를 위해

1. 쓰나오 은혜 교회가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와 복음전파에 힘쓰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2. 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속 사람이 변화하여 믿음 안에 자라도록
3. 사역자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4.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5. 오르난의 타작 마당처럼 주님과 화목할 수 있는 처소를 주시도록

### 선교사를 위하여

1.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도록. 몸도 건강할 수 있도록
2. 성령님의 음성께 귀 기울이며 시대를 분별하고 강하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3. 주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4. 필요한 생활비와 사역비가 넉넉히 채워지도록
5. 세 자녀 드보라 다니엘 사론이 항상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 선교부 광고

## 1.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칠레 AFA #1 Next Generation (5/26-6/2)  
S/L: 안영식 목사  
렉터: 장준영 장로  
문의: 차윤석 집사 (714-334-2340)
- 동유럽 Romania Local Church G/E & VBS (6/2-6/9)  
디렉터: 권혁석 장로  
문의: Steve 어 안수집사 (714-318-8549)
- 케냐 인카운터 1기 (6/21-6/30)  
S/L: 설성훈 목사  
디렉터: 백준승 장로  
문의: 로이김 집사 (213. 999.1737)  
T/M : 5/12, 7PM, VC108

- 필리핀 Grace camp & 개척선교 (6/23-6/27)  
S/L: 김홍권 목사  
리더: 이창석 집사 (213-598-8845)
- 콜롬비아 AFA 6기 (7/5-7/8)  
S/L: 송중호 목사  
렉터: 최은용 집사  
문의: 한상영 집사 (213-713-2001)
- 멕시코(바하 캘리포니아) 의료선교 (7/16-7/19)  
디렉터: 김영수 장로  
팀장: 제임스 황 집사  
문의: 조셉 한 집사 (714-213-5033)

## 2.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AM  
문의: 의료선교국

## 3.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 4.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 5.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